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2022, Vol. 8, No. 2, 167-188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대인관계 외상을 경험한 여대생의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순차적 매개효과*

이 은 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석사과정

김 빛 나†
가천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외상 후 성장이란 외상에 대처한 결과 개인이 외상 사건 이전보다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것을 가리킨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의미추구, 의미발견은 각기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어왔으나, 대인관계 외상을 경험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의미추구, 의미발견이 대인관계 외상을 경험한 여대생의 외상 후 성장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탐색하고, 나아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총 274명의 여대생이 참여하였으며, 관련 척도들이 포함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분석 결과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은 각기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또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 외상을 경험한 여대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의미추구를 시도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하며,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으로 이어질 때 외상 후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상담 장면에서 치료적 시사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대인관계 외상, 외상 후 성장, 지각된 사회적 지지, 의미추구, 의미발견

---

* 본 논문은 1저자인 이은영의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빛나 / 가천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 (131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가천관 926호 / E-mail : shine-binna@hanmail.net

www.kci.go.kr

사람들은 일생 동안 대인관계나 직업적 문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및 사건사고 등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부정적 생활 사건 이후 사람들은 일상적인 적응 수준으로 복귀하기도 하지만, 어떤 어려움들은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기존 정신장애 진단체계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유발할 수 있는 외상 사건을 참전, 강간 등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행에의 노출”로 협소하게 정의하였으나, 최근에는 극단적인 스트레스 사건 외에도 누구나 살아가며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확대하여 정의하며, 과거에는 개인이 직접 외상을 경험해야만 인정했던 것과 달리 간접경험도 포함하여 외상 사건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1980; APA, 1994; APA, 2013). 이처럼 최근 들어 외상 사건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으며(장한, 2016), 다양한 사건들이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삶의 위기로 지각이 될 때 이를 광의적으로 외상 사건에 포함시키기도 한다(Tedeschi & Calhoun, 1996).

아울러 외상을 경험한 사람 모두가 PTSD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Bonanno, 2004). 외상 사건 이후 인간의 적응 양상에 다양성이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외상 이후 오히려 내적인 성숙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가리켜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이라고 한다(Tedeschi & Calhoun, 1996). 이는 외상이라는 힘든 사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성격 특성과 더불어 외상 경험에 대처하며 분투한 결과 자기 지각의 변화,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대인관계 깊이 증가, 영적, 종교적 관심 증가 등 외상 사건 이전보다 삶의 질적인 향상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Tedeschi & Calhoun, 1996).

다양한 외상 사건을 크게 둘로 나누면, 가해 요인에 따라 대인외상과 비대인외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Allen, 2005). 대인외상은 살인, 폭력, 범죄, 배신 등 타인에 의해 발생하는 고의적이거나 부주의로 인한 외상을 말한다.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외상은 비대인외상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대인관계 외상 경험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어려움이 크고,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에 취약해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지속하여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크며, 불신감, 수치심 등과 같은 성격변화를 나타낸다(고나래, 2008; Allen, 2005; Kapeleris & Paivio, 2011; Taylor, Asmundson, & Carleton, 2006). 또한 대인외상 집단이 비대인외상 집단에 비해 PTSD 점수가 높고, 외상 후 성장 점수가 낮으며, 자기체계 손상이 클 뿐 아니라 불안, 우울, 자아탄력성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수림, 2015). 이처럼 대인외상은 더 복잡하고 광범위하며 만성적인 여파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박은아, 김성혜, 2017). 또한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과거의 대인관계 외상에 대해 만성화 또는 내면화 되어 겉으로 잘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상담에 의뢰된 이후에야 현재 호소하는 증상과 연결되어 대인관계 외상과 마주하게 된다(서영주, 김영근, 2018). 따라서 대인외상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심리상담 및 치료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상은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으나, 특히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에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Ford, 2012).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상

www.kci.go.kr

대학생은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적인 발달 과업인 성인 초기에 해당하며(Erikson, 1963), 이 시기 대인외상 경험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게 하여 이후 성인기에서의 정서, 행동적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Shane, 2011). 또한 외상 사건의 경험과 관련한 성차 연구를 살펴보면, Kessler, Chiu, Demeler과 Walters(2005)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3배 높은 PTSD 유병률을 보이며, 이는 여성이 성폭행이나 강간과 같은 특정 외상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과 관련된 사회적, 심리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PTSD의 1년 유병률이 여성이 7.5%로, 남성이 3.8%인 것에 비교하였을 때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국내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인외상이 가장 흔하고 고통스러운 외상 사건으로 보고되었다(박재윤, 2021; 양난미, 이은경, 송미경, 이동훈, 2015). 이러한 대인외상 경험은 학업을 유지할 정도로 자원이 있는 여대생에게도 자기조절의 문제, 자기파괴적 행동, 알코올 사용, 대인관계 문제, 낮은 자존감 등 다양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나래, 2008; 이유경, 2006; Berenz, Overstreet, Kendler, Amstadter, & Dick, 2016; DePrince, Combs, & Shanahan, 2009; Ford, Stockton, Kaltman, & Green, 2006; Green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초기 여대생의 대인외상에 초점을 맞추어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으로서 사회적 지지를 주목하였다. 외상 후 성장 모형을 제시한 Tedeschi와 Calhoun(2004)은 주변 관계에서 지지적 반응과 같은 사회적 지지는 의도적 반추 과정에 영향을 미쳐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함을 보여주었고, 그 외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고통을 견디고 외상 후 성장으로 이르게 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Cobb, 1976; Park, Cohen, & Murch, 1996; Weiss, 2002).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김민경, 2017; 박선정, 2015; 이유리, 장현아, 2016; McDonough, Sabiston, & Wrosch, 2014; Tanriverd, Savas, & Can, 2012; Žukauskienė, Kaniušonytė, Bergman, Bakaitytė, & Truskauskaitė-Kunevičienė, 2019)과 달리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된 연구들도 있다(윤명숙, 김남희, 최혜정, 2013; Cao, Qi, Ca, & Han, 2018; Weiss, 2004). 이는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과 무관하기보다 두 변인 간의 직접적인 관계만을 고려하거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김진수, 서수균, 2011).

삶의 의미는 사회적 지지와 더불어 외상 후 성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일찍이 Frankl(1959)은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고통이나 역경 속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이는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내 외상 후 성장 관련 변인을 메타분석한 결과에서도 외상 후 성장 촉진 요인 중 삶의 의미가 큰 효과 크기를 나타냈고(장한, 2016),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도 삶의 의미는 개인을 외상 후 성장으로 이끄는 주요 변인이라는 점이 일관되게 보고되었다(이유나, 2019; 임선영, 2017; 조진희, 정문경, 2017; Dursun, Saracli, & Konuk, 2014). 그러나 외상 경험 속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노력을 동반하는 일이

www.kci.go.kr

기 때문에(Frankl, 1962) 삶의 의미추구가 긍정적으로 발현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요인이 중요하다(Shin & Steger, 2016). 이와 일관되게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삶의 의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이 밝혀져 있다(김인주, 김도연, 2015; 임선영, 2013; 하정혜, 김지현, 2016; Dunn & O'Brien, 2009; Krause, 2007). 또한 최근 삶의 의미와 관련된 변인을 메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가 삶의 의미의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채선화, 김진숙, 2020).

한편 삶의 의미에 대한 초기 연구들이 개인이 이미 지각한 의미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 것과 달리, Steger, Frazier, Oishi와 Kaler(2006)는 Frankl(1959)의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삶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기본적 동기가 있다는 기본 가정에 입각하여,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는 동기인 '의미추구(search for meaning)'와 실제 자신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주관적인 느낌인 '의미발견(presence for meaning)'으로 삶의 의미를 구분하였다.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은 모두 사회적 지지와 정적 관계를 가진다는 점이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져 있다. Rosová, Orosová와 Žiaková(2015)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한 집단이 사회적 지지를 중간 정도로 인식하거나 낮게 인식한 집단에 비해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박지영과 정예슬(2019)의 연구에서도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의미추구 시 희망을 더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연령 증가에 따른 의미를 더 잘 발견하게 되었고(Krause & Rainville, 2020), 테러 생존자 집단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의미발견 수준이 높아졌다(Aliche, Ifeagwazi, Onyishi & Mefoh, 2019).

반면 삶의 의미를 세분하여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다소 차별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의미추구는 자신에 대해 보다 깊고 풍부하게 이해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열망과 동기로서 외상 후 성장을 증가시키기도 하나(송주연, 2010),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오히려 외상 후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부적응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Bonanno, Papa, Lalande, Zhang, & Noll, 2005; Updegraff, Silver & Holman, 2008).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의미발견이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를 완전매개하여,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으로 이어질 때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기도 한다(정주리, 2007; 조은진, 2016). 반면, 의미발견은 주관적 안녕감 및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감, 긍정적 정서와 일관적인 정적 관계를 보이며, 분노, 슬픔, 우울과는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진, 2013; 윤민지, 2011; 정미영, 2013; 정주리, 2007; 지은주, 2016; 차정희, 2015). 아울러 의미발견이 외상 후 성장의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김보라, 신희천, 2010; 민덕기, 2019; 송주연, 2010; 최정윤, 2014; Aliche et al., 2019).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는 모두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삶의 의미와 관련하여 그 하위요소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차별적인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들이 있어(정주리, 2007; 조은진, 2016; Bonanno et al., 2005;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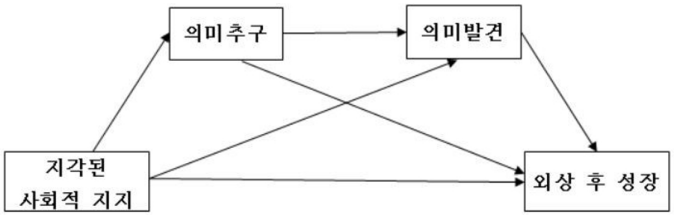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Updegraff et al., 2008),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외상 후 성장 연구에 있어,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역할을 구분하여 살펴본 선행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대인관계 외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은 있으나, 주로 자기노출이나 적극적 대처, 정서조절 전략과 같은 변인들과 함께 연구되었으며(박선정, 2015; 신승후, 2018; 이유리, 장현아, 2016; 임채원, 정주리, 2018; Howard Sharp et al., 2017; Schumm, Briggs-Phillips, & Hobfoll, 2006; Woodward et al., 2015), 삶의 의미와 더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대인관계 외상자의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며(황소연, 2021; Elizabeth, & Chang, 2021; Lim, Caldez, & Lily, 2015), 특히 대인관계 외상에 대한 삶의 의미를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으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는 민덕기(2019) 외에는 아직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적다. 아울러 성인 초기, 여성이라는 성별이 대인관계 외상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나, 이 교차점에 있는 여대생의 대인관계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외상을 경험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각각의 매개효과와 더불어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에 선행하는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순차적 매개효과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두 변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 중 의미를 추구할 때 더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추구-발견 모델(search-to-presence model)'에 부합하는 예측이다(Steger et al., 2006). 유사하게 Park(2010)은 의미부여모델(meaning making model)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외상 사건으로 인해 개인이 지니던 신념이 흔들리고, 외상 사건에 대한 평가가 개인의 신념과 불일치하여 이를 스트레스로 자각하게 되며, 이는 의미추구를 시작하게 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의미발견을 촉진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미추구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둘째, 의미발견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셋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그림 1).

방 법

www.kci.go.kr

연구대상

대인관계 외상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응답한 인원 총 343명 중 외상 경험 당시의 주관적인 고통과 괴로움 수준이 보통 미만(3점 미만)이라고 응답한 설문을 제외하였고, 외상을 경험한 지 3개월 미만이거나 10년이 지났다고 응답한 설문을 제외하여 총 27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는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 동반되어야 하고(Fontana & Rosenhack, 1998; Linley & Joseph, 2004), 외상 사건 후 주로 3개월까지는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여 성장을 경험하기에 무리가 있으며(Schroevers, Helgeson, Sanderman, & Ranchor, 2010), 시간이 많이 경과할수록 기억 왜곡과 자연적 성숙이 외상 후 성장과 혼입될 수 있어(임선영, 권석만, 2012) 이를 고려하기 위함이다. 연구 참여 전 연구 목적과 방법, 개인보호에 대한 설명 및 수집 자료의 비밀유지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제공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HIRB-202010-HR-009)을 받아 진행되었다.

측정도구

대인관계 외상 관련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외상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송승훈(2007)이 전겸구와 김교헌(1991)의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하위요인과 Norris(1990)의 '일반 모집단을 위한 외상 스트레스 사건 목록' 그리고 Tedeschi와 Calhoun (1996)의 미국판 PTGI 개발 연구에서 사용된 사건 목록들을 참고하여 제작한 외상 사건 12가지 목록 중 대인관계적 외상에 들어가는 8가지 사건들을 제시하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외상 사건의 목록은 대인관계 파탄, 적응의 어려움, 배신 충격, 의미 있는 타인의 질병, 의미 있는 타인의 사망, 지인으로부터의 성추행 및 성폭력, 어린 시절의 학대,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언어나 신체적 폭력,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라고 선택한 사건을 외상 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외상 사건이 발생한 당시와 최근의 고통 수준을 5점 척도(1: 전혀 고통스럽지 않음 ~ 5: 매우 고통스러움)로 평정하여 외상 경험을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유희정(2012)이 연구에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개인이 친구, 친척, 이웃,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으로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에 대한 점수는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은 것을 의미한다. 유희정(2012)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 척도(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

본 연구에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측정하

www.kci.go.kr

기 위해 Steger, Frazier, Oishi와 Kaler(2004)가 고안하고 원두리, 김교헌, 권선중(2005)이 타당화한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를 사용하였다. 삶의 의미 척도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추동과 지향성인 의미추구와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는 주관적인 느낌인 의미발견이라는 두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10문항으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으로 구성되어 있다. 7점 Likert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두리 등(2005)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삶의 의미의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8이며, 각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의미추구 .87, 의미발견 .83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성장 척도 확장판(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Expanded: PTGI-X)

본 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한 외상 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에서 영적, 실존적 성장의 측정에 대한 타당도를 높인 PTGI-X(Tedeschi, Cann, Senol-Durak, & Calhoun, 2017)를 김시형, 임수정, 신지영, 이덕희, 이동훈(2020)이 한국어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영적·실존적 깊이의 증가, 대인관계 깊이 증가, 자기 지각의 변화로 구성되어 있다. 6점 Likert(1점: 전혀 경험하지 못함 ~ 6점: 많이 경험함)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시형 등(2020)의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7이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2.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확인하였고, 부가적으로 외상 후 성장을 지각하는 정도에 종교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김시형 등, 2020), 종교 유무에 따른 주요 변인 간 평균 차이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지각된 사회적 지지, 의미추구, 의미발견, 외상 후 성장 간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순차적 매개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Hayes, 2015)의 Model 6를 사용하여 순차적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은 기존의 Baron과 Kenny의 3단계 방법이나 Sobel의 Z검증에 비해, 충족되기 어려운 정규분포 가정에 기초하지 않고 높은 검정력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조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유정, 2015). 본 연구에서는 사례 수를 5,000개로 설정하고,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이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Preacher & Hayes, 2004).

결 과

기술통계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2.17세(SD = 2.19)

www.kci.go.kr

였으며, 가장 고통스러운 대인관계 외상으로 보고한 사건은 적응의 어려움(28.1%), 대인관계 파탄(24.1%), 배신 충격(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상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는 대학생 시기(37.6%)가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생 시기(32.5%), 중학생 시기(21.9%) 순으로 나타났다. 외상 사건 경과 시기는 3 ~ 10년 전(43.4%)로 가장 많았고, 2 ~ 3년 전(21.2%), 1 ~ 2년 전(19.7%) 순으로 나타났다.

외상 경험 당시 고통 수준에 관한 질문에는 '매우 고통스러웠다'(53.3%)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고통스러웠다'(38.0%), '보통이다'(8.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상 경험 후 최근의 고통에 대해서는 '대체로 고통스럽지 않다'(27.0%)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고통스럽다'(24.8%), '보통이다'(24.5%) 순이었다. 대인관계 외상 유형에 따른 외상 경험 당시의 고통 수준의 평균은 4.45점이었으며, 의미 있는 타인의 사망(4.68점), 어린 시절의 학대(4.67점),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언어, 신체적 폭력이(4.65점) 순이었다. 최근 고통 수준의 평균은 2.80점으로 외상 경험 당시에 비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 의미 있는 타인의 사망(3.35점)이 여전히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어린 시절의 학대(3.33점), 배신 충격(3.09점)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91.78(SD = 19.45), 의미추구의 평균은 26.76(SD = 5.82), 의미발견의 평균은 22.65(SD = 6.27), 외상 후 성장의 평균은 100.18(SD = 22.56)로 나타났다(표 1). 더불어 정규분포의 기준으로 제시된 왜도 < ±2.0, 첨도 < ±4.0을 충족하여 자료의 정규성이 확인되었다(Hong, Malik & Lee, 2003).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N = 274)

	1	1-1	1-2	1-3	1-4	2	3	4	4-1	4-2	4-3	4-4
1. 사회적 지지	-											
1-1. 정서적 지지	.94**	-										
1-2. 평가적 지지	.93**	.87**	-									
1-3. 정보적 지지	.94**	.83**	.84**	-								
1-4. 물질적 지지	.91**	.79**	.77**	.81**	-							
2. 의미추구	.41**	.39**	.43**	.37**	.33**	-						
3. 의미발견	.43**	.42**	.38**	.43**	.38**	.56**	-					
4. 외상 후 성장	.53**	.47**	.49**	.52**	.49**	.51**	.58**	-				
4-1. 자기지각의 변화	.52**	.48**	.50**	.50**	.44**	.52**	.57**	.92**	-			
4-2. 대인관계의 변화	.49**	.46**	.46**	.47**	.43**	.29**	.31**	.74**	.59**	-		
4-3. 영적, 실존적 깊이 증가	.33**	.26**	.27**	.35**	.36**	.37**	.50**	.85**	.68**	.50**	-	
4-4.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47**	.43**	.45**	.43**	.43**	.55**	.56**	.86**	.84**	.49**	.64**	-
평균	91.78	26.53	22.58	22.11	2.056	26.76	22.65	100.18	33.50	19.95	25.50	21.22
표준편차	19.45	5.84	4.89	5.22	4.97	5.82	6.27	22.56	8.13	5.71	7.71	4.94

주. 사회적 지지 = 사회적 지지 척도, 의미추구, 의미발견 = 삶의 의미 척도(MLQ), 외상 후 성장 = 외상 후 성장 척도 확장판(PTGI-X), $^{**}p < .01$

www.kci.go.kr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 의미추구, 의미발견, 외상 후 성장 및 하위요소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의미추구, 의미발견, 외상 후 성장 사이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의미발견, $r = .43$, $p < .01$,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 = .53$, $p < .01$, 의미발견 또한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58$, $p < .01$. 의미추구는 의미발견, $r = .56$, $p < .01$, 외상 후 성장, $r = .51$, $p < .01$,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맺고 있었다, $r = .41$, $p < .01$.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에 지각된 사회적 지지, 매개변수에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종속변수에 외상 후 성장을 투입하고 Process Macro(Hayes, 2015)의 Model 6로 분석하였다. 위 변인 중 종교 유무에 따라 의미추구, 의미발견, 외상 후 성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분석 시 종교 유무를 통제하였다. 아울러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공차한계가 .1 이상이거나 분산팽창요인이 10 이하일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5).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의미추구, 의미발견, 종교의 공차 한계와 분산팽창요인을 살펴보면 공차 한계는 .64 ~ .97, 분산팽창요인은 1.04 ~ 1.5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통해 외상 후 성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를 검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의미추구를 거쳐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09$, 95% Bias-corrected $CI = .02 \sim .17$. 즉,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의미추구가 높아져 외상 후 성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표 2.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N = 274)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F	R^2
1	외상 후 성장	지각된 사회적 지지	.59	.06	.51	9.91***	58.89***	.30
2	의미추구	지각된 사회적 지지	.60	.08	.40	7.19***	29.23***	.17
3	의미발견	지각된 사회적 지지	.39	.09	.24	4.57***	51.59***	.36
		의미추구	.48	.58	.45	8.34***		
4	외상 후 성장	지각된 사회적 지지	.34	.06	.29	5.75***	58.12***	.46
		의미추구	.14	.04	.18	3.35***		
		의미발견	.24	.04	.33	5.91***		

주. 종교 유무가 통제됨. ***$p < .001$

www.kci.go.kr

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의미발견을 거쳐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09, 95% Bias-corrected CI = .04 ~ .15. 즉,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의미발견 수준이 높아져 외상 후 성장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차례로 거쳐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순차적 매개 가설이 지지되었다, B = .07, 95% Bias-corrected CI = .03 ~ .11. 즉, 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의미추구를 많이 하게 되고, 의미추구가 높을수록 의미발견 수준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외상 후 성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 제시된 연구모형의 각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매개요인으로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관계성의 방향은 동일하였으나,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의미발견에 비해, β = .24, p < .001, 의미추구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β = .40, p < .001. 반대로 외상 후 성장은 의미추구보다, β = .18, p < .001, 의미발견에 의해 더욱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33, p < .001. 총 3개의 매개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으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대인관계 외상에 대한 의미추구를 할 수 있는 자원으로 기능하고, 이러한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으로 이어질 때 외상 후 성장으로 갈 수 있는 순차적 매개효과를 강조하는 결과로 여겨진다. 또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총 효과에 비해, β = .51, p < .001,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매개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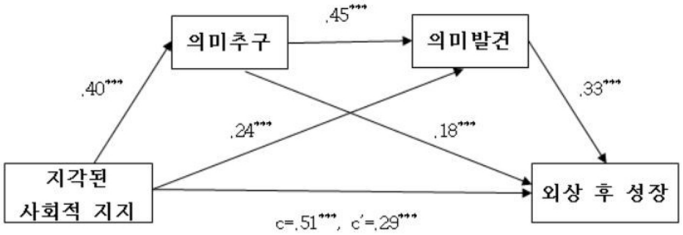

그림 2.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순차적 매개효과

주.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이며, 종교 유무가 통제됨, ***p < .001

표 3.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순차적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부트스트래핑 결과 (N = 274)

Model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 간접효과	.25	.05	.16	.34
지각된 사회적 지지 → 의미추구 → 외상 후 성장	.09	.04	.02	.17
지각된 사회적 지지 → 의미발견 → 외상 후 성장	.09	.03	.04	.15
지각된 사회적 지지 → 의미추구 → 의미발견 → 외상 후 성장	.07	.02	.03	.11

주. LLCI =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 =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www.kci.go.kr

인으로 투입한 후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졌지만 직접 효과가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β = .29, p < .001. 따라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부분매개하나, 여전히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을 더 많이 경험하는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인외상을 경험한 여대생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순차적으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3가지 가설에 따른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미추구는 외상 후 성장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의미추구가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미추구가 외상에 대한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거나,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으로 이어져야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정주리, 2007; 조은진, 2016; Updegraff et al., 2008; Bonanno et al., 2005). 이는 대인관계 외상을 경험한 여대생들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하게 되면 외상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동기가 촉진되고, 이러한 의미추구는 그 자체로도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둘째, 의미발견 또한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 외상을 경험한 여대생들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감을 더 가지게 되고, 이는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이는 의미발견이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며(김보라, 신희천, 2010; 민덕기, 2019; 송주연, 2010; 최정윤, 2014),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의미를 발견하여 외상 후 성장에 이르도록 한다는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Aliche et al., 2019; Krause & Rainville, 2020).

셋째, 최종적으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대인외상을 경험한 여대생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을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의미추구에서 의미발견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또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의미추구가 강해지며, 이것이 다시금 의미발견을 촉진하여 외상 후 성장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경로가 모형 내 다른 경로들에 비해 표준화된 경로계수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관련성을 나타냈다. 두 매개변인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사회적 지지, 외상 후 성장과 맺고 있는 관계를 더 자세히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의미발견에 비해 의미추구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의미를 발견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의미를 찾고자 하는 동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Janoff-Bulman(1992)은 박살난 가정이론(theory of shattered assumptions)을 제시하며 외상은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과 세상에 대한 가정들을 산산조각내어, 새로운 의미를 찾도록 하는 인지적 처리로 이어지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기

www.kci.go.kr

본 가정을 상실한 외상 경험자가 새로운 의미를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는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조력하는 데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외상 후 성장은 의미추구보다 의미발견과 더 큰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의미추구보다 의미발견이 외상 후 성장을 비롯한 삶의 긍정적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정주리, 2007; 조은진, 2016; Linley & Joseph, 2004; Zeligman, Varney, Grad, & Huffstead, 2018). 즉, 외상 이후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보다는 그 결과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지각하는 것이 외상 후 성장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매개변인들을 고려한 후에도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들과는 일치하지 않으며(윤명숙 등, 2013; Weiss, 2004), 사회적 지지가 그 자체로서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자기-비난의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며, 새로운 도식과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박지선, 오인수, 2017; 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 이동훈, 윤기원, 이수연, 이은선, 김정한, 2016; Tedeschi & Calhoun, 1996). 이는 개인이 고통스러운 사건을 마주하였을 때, 친구나 가족 등 타인으로부터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가 외상에서 회복되며 더 성장할 수 있는 강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직접 효과가 여전히 유의하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대인외상을 경험한 여대생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자신에게 가용한 사회적 지지 자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지지 체계가 빈약할 경우 상담자가 외상 후 성장을 위한 사회적 자원과 네트워크 형성의 역할을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외상 발생 시기가 대학 입학 이전인 경우가 62.4%임을 고려하였을 때,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의 또래상담, Wee class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CYS-net) 등과 같은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이를 통하여 대인외상을 경험한 여자 청소년이 적시에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기존 대다수 연구에서 외상 경험의 유형을 세분하지 않고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대인관계 외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대인관계 외상자들은 상담의 장면에서 상담자와의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대인관계 외상자에 대한 연구가 특히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외상 중 대인관계 외상을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대인관계 외상자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였다.

둘째,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도 본 연구의 의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대인관계 외상에 더 취약하고 외상을 경험하기 쉬운 시기가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초기 여성의 대인관계 외상에 집중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 외상 후 성장 연구는 주로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www.kci.go.kr

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외상을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중년 여성의 연구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조진희, 정문경, 2017; 하정혜, 김지현, 2016), 중년이 보고하는 삶의 의미는 정체성의 변화나 세상을 떠나가는 주변 사람들과의 이별 경험 등으로 야기되는 특성을 지닌다(조진희, 정문경, 2020). 이에 비해 대학생은 다양한 사회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에 있으며, 중년에 비해 친구 관계나 학업 및 직업에서의 성취 등이 삶의 의미에 더 큰 원천이 되고, 의미추구의 역할이 중년에 비해 더 크다(정영숙, 조설애, 2013). 연령에 따라 삶의 의미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Krause, 2012), 여대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를 외상 후 성장 촉진 변인으로 살펴본 것은 연령에 걸맞은 삶의 의미 원천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지닐 수 있다. 또한 빈도상 심각한 질병보다는 대인관계 내에서 크고 작은 외상 사건이 상담 장면의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면, 대인관계 외상을 경험한 여대생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 결과는 이들의 외상 후 성장을 돕기 위한 치료적 중재와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순차적 매개효과 분석을 통하여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 작용하는 변인 간의 새로운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지는 각기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연구되어왔으나, 의미발견 과정인 의미추구와 그 결과 삶의 의미를 획득한 의미발견을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였다(김보라, 신희천, 2010; 최정윤, 2014). 본 연구에서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모두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매개하지만, 사회적 지지는 의미추구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반면 의미발견은 외상 후 성장과 상대적으로 더 강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곧바로 의미발견을 촉진하기보다는 대인외상 경험 이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추구할 동기를 북돋워 주며, 이러한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으로 이어질 때에 외상 후 성장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을 시사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모형 내에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잠정적인 선후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두 매개변인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거쳐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는 대인외상 경험을 가진 여대생의 상담 장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Folkman(1997)은 삶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기질적 요소라기보다 훈련이나 타인의 도움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대처 변인이라고 하였다. 상담자는 대인관계 외상을 겪은 여대생 내담자와의 라포 형성을 통하여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 기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들이 의미를 추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대인관계 외상을 겪은 내담자에게 의미추구는 일견 부담스러운 도전과제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 과거 외상 사건과 현재 삶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의미발견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외상에 대한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는 내담자의 이러한 불

www.kci.go.kr

안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Cohen & Cairns, 2010; Steger, Oishi & Kesebir, 2011; Updegraff et al., 2008). 상담자는 대인관계 외상을 겪은 내담자가 상담 과정에서 드러낼 수 있는 의미추구에 대한 불안을 충분히 타당화(validation) 시켜주는 한편,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사용된 자료가 모두 자기보고식 설문에 의해 측정되어 연구 참여자의 응답 경향에 따라 과대 혹은 과소평가 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거나 방어적으로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등을 함께 사용하여 긍정 응답편향을 측정하거나 피검자 주변의 보고를 참고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횡단적 연구로 일시에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변인 간 선후 관계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에 선행하는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이는 확실한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두 매개변인 간 다른 관계성 또한 가능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설계를 통한 인과적 설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 외상 사건을 회상하여 보고하였기 때문에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오염이 있을 수 있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 역시 외상 사건 당시의 지지를 회상 보고하였기 때문에 부정확한 보고가 있을 수 있다. 비록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한계점은 대인관계 외상을 경험한 여대생 코호트에 대한 종단연구를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의 표본은 편의 표본(convenience sample)으로서 연구결과를 전체 여대생에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며, 대학생이 아닌 동연령대 성인 여성의 삶의 의미가 다를 수 있어 일반화의 한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연령, 전공, 지역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 대표성을 가지도록 표집된 대규모의 연구에서 본 연구결과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외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대인관계 외상의 세부 유형에 따라 살펴보거나 외상 사건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외상 경험 이후 시간의 경과, 빈도, 유형, 복합성 등에 따라 외상 후 성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외상 경험을 세분화하여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어린 나이부터 스마트 기기를 접하기 때문에 학교환경에서 일어났던 학교폭력이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김지연, 2021), 스마트폰의 보편화와 초소형 카메라 등 장비의 보편화로 인해 불법촬영 및 유포에 대한 사이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함영욱, 2021) 이와 같은 사이버 폭력(cyber-bullying)이나 사이버 성폭력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 외상은 온라인 소통이 활성화되고 있는 코로나 19(COVID-19)시대 이후 더 중요해질 수 있다(김지연, 2021). 따라서 비대면 상황에서의 대인관계 외상에 대해 살펴본다면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직접 경로가 유의하였다는 점은 의미추

www.kci.go.kr

구와 의미발견 외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않은 다른 매개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탈중심화나 반추와 같은 인지 변인을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외상으로 인한 고통을 견디게 할 뿐 아니라 인지적 처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인지 도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보고한다(Cohen & Collens, 2013; Weiss, 2004). 그 중 인지 도식의 변화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으로 탈중심화나 반추와 같은 인지적 변인을 함께 살펴본다면 외상 후 성장의 경로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고나래 (2008). 아동, 청소년기 복합외상 경험이 정서조력과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희, 이희경 (2013). 의미추구와 긍정정서가 의미발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107-124.

김민경 (2017). 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에 관한 개념도 연구: 관계상실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보라, 신희천 (2010). 자아탄력성과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17-136.

김시형, 임수정, 신지영, 이덕희, 이동훈 (2020). 외상 후 성장 척도 확장판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3), 195-220.

김유진 (2013). 삶의 의미추구 및 발견, 기본심리욕구와 안녕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인주, 김도연 (2015). 지각된 사회적 지지, 탈중심화,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리 외상을 경험한 성폭력 지원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상담학연구, 16(5), 55-73.

김지연 (2021). 대학생의 외상 후 스트레스-성장 모형검증: 인지와 정서대처 과정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진수, 서수균 (2011). 친밀한 관계경험과 성장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793-809.

민덕기 (2019). 대인관계 외상을 경험한 성인의 의미추구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정서조절양식에 따른 집단 비교.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선정 (2015). 관계 상실 경험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30(30), 71-94.

박은아, 김성혜 (2017). 대학생의 대인외상경험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외상 후 성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상담연구, 6(2), 133-155.

박재윤 (2021). 대인외상 경험 여대생의 성인애착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포커싱적 태도의 매개효과.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선, 오인수 (2017). 청소년기에 괴롭힘을 경험한 성인 피해자들의 회복과 성장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5(2), 1-33.

박지영, 정예슬 (2019). 삶의 의미추구와 학업

www.kci.go.kr

만족의 관계: 희망의 매개효과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6(2), 159-187.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보건복지부 (2017).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조사.

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 청소년들의 외상 사건 경험. 한국교육심리학회, 26(3), 787-816.

서영주, 김영근 (2018). 대인관계 외상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775-798.

송승훈 (2007).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PTGI)의 신뢰도와 타당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주연 (2010). 소아암 환아 어머니의 희망과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승후 (2018). 대인외상 경험자의 자기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간접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미성 (2006). 스트레스 완충자원으로서 삶의 의미의 역할.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난미, 이은경, 송미경, 이동훈 (2015). 외상을 경험한 여자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175-197.

원두리, 김교헌, 권선중 (2005). 한국판 삶의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2(4), 576-585.

유희정 (2012).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명숙, 김남희, 최혜정 (2013). 부모와 사별한 대학생의 애도경험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 39, 83-111.

윤민지 (2011). 긍정정서와 삶에 대한 만족 관계에서 긍정사고, 의미발견 및 의미추구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동훈, 윤기원, 이수연, 이은선, 김정한 (2016). 대학생의 대인외상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 외상 겸험 관련 변인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20(2), 95-117.

이수림 (2015). 외상 경험 및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논총, 39, 93-124.

이유경 (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유나 (2019). 외상 후 성장과 개인심리내적 변인의 관계탐색: 메타분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유리, 장현아 (2016). 관계 상실 경험 여고생의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1), 65-80.

임선영 (2013). 역경후 성장에 이르는 의미재구성 과정: 관계상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선영 (2017). 외상 후 성장과 삶의 의미의 관계 탐색: 삶의 의미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지행동치료, 17(3), 419-443.

www.kci.go.kr

임선영, 권석만 (2012). 대학생의 관계상실을 통한 성장에 관한 연구-인지적 유연성과 인지적 정서조절 방략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261-181.

임채원, 정주리 (2018). 대인 간 스트레스 사건 이후 고립감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와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9(6), 55-72.

장 한 (2016). 외상 후 성장 및 관련변인의 상관관계 메타분석: 촉진변인군과 억제변인군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겸구, 김교헌 (1991). 스트레스와 대처와 관한 통합적 모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34-65.

정미영 (2013). 삶의 의미의 두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4(1), 53-180.

정영숙, 조설애 (2013). 삶의 의미 원천과 의미에 대한 노력이 대학생과 중년 성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3), 507-531.

정주리 (2007). 삶의 의미발견 과정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유정 (2015). 임상연구에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의 비교 및 통합.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4), 1113- 1131.

조은진 (2016).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관계에서 긍정정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검증.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진희, 정문경 (2017). 중년여성의 삶의 의미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 문제중심 대처와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2(4), 343-357.

조진희, 정문경 (2020). 관계상실을 경험한 중년여성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225-1261.

조효진 (2018). 대학생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종단적 변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지은주 (2016). 중년기 남녀의 삶의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의미발견, 생성감, 영성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차정희 (2015). 삶의 의미 추구 및 발견, 심리적 유연성, 자아탄력성의 관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선화, 김진숙 (2020). 삶의 의미 관련 변인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439-468.

최정윤 (2014). 종교성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를 매개변인으로.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정혜, 김지현 (2016).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역할갈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023-1046.

함영욱 (2021). 사이버수사관의 성인지 감수성 정도가 사이버 성폭력 사건의 수사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소연 (2021).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수용과 긍정적 사회적 반응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www.kci.go.kr

Aliche, J. C., Ifeagwazi, C. M., Onyishi, I. E., & Mefoh, P. C. (2019). Presence of meaning in life mediates the relations between social support, posttraumatic growth, and resilience in young adult survivors of a terror attack. *Journal of Loss and Trauma*, *24*(8), 736-749.

Allen, J. (2005).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Ins.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 3rd edition (DSM-Ⅲ)*. Washington, DC: Author.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 4th edition (DSM-IV)*. Washington, DC: Author.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ition (DSM-5)*. Washington, DC: Author.

Berenz, E. C., Cho, S. B., Overstreet, C., Kendler, K., Amstadter, A. B., & Dick, D. M. (2016).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interpersonal trauma exposure and alcohol use trajectories. *Addictive Behaviors*, *53*, 67-73.

Bonanno, G. A.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estimate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s? *American Psychologist, 59*(1), 20-28.

Bonanno, G. A., Papa, A., Lalande, K., Zhang, N., & Noll, J. G. (2005). Grief processing and deliberate grief avoidance: a prospective comparison of bereaved spouses and par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1), 86-98.

Cao, W., Qi, X., Cai, D. A., & Han, X. (2018). Modeling posttraumatic growth among cancer patients: The roles of social support, appraisals, and adaptive coping. *Psychooncology*, *27*(1), 208-215.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Cohen, K., & Cairns, DR. D. (2010). Is searching for meaning in life associated with reduced subjectiv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xistential Psychology & Psychotherapy, 3*(1), 1-5.

Cohen, K., & Collens, P. (2013). The impact of trauma work on trauma workers: A metasynthesis on vicarious trauma and vicarious posttraumatic growth.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5*(6), 570.

DePrince, A. P., Combs, M. D., & Shanahan, M. (2009). Automatic relationship-harm associations and interpersonal trauma involving close othe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3*(2), 163-171.

Dunn, M. G., & O'Brien, K. M. (2009). Psychological health and meaning in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religious coping in Latina/Latino immigra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31*(2), 204-227.

Dursun, P., Saracli, S., & Konuk, O. (2014). The roles of meaningful life and posttraumatic stress in posttraumatic growth in a sample of Turkish university students.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59,* 702-706. doi:10.1016/j.sbspro.2014.12.454.

Elizabeth, A. Y., & Chang, E. C. (2021).

www.kci.go.kr

Relational meaning in life as a predictor of interpersonal well-being: A prospective 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8*, 110377.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Folkman, S. (1997). Positive psychological states and coping with severe stress. *Social Science & Medicine, 45*(8), 1207-1221.

Fontana, A., & Rosenheck, R. (1998). Psychological benefits and liabilities of traumatic exposure in the war zon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1*(3), 485-503.

Ford, J. D., Stockton, P., Kaltman, S., & Green, B. L. (2006). Disorders of Extreme Stress (DESNOS) symptoms are associated with type and severity of interpersonal trauma exposure in a sample of healthy young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11), 1399-1416.

Ford. J. D. (2012). 진단명: PTSD 원인, 증상, 진단, 치료와 예방. (김정휘, 허주연, 김태욱 옮김). 서울: 시그마 프레스.

Frankl, V. E. (1959).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Boston, MA: Beacon Press.

Green, B. L., Krupnick, J. L., Stockton, P., Goodman, L., Corcoran, C., & Petty, R. (2005). Effects of adolescent trauma exposure on risky behavior in college women. *Psychiatry: Interpersonal and Biological Processes, 68*(4), 363-378.

Hair, J. F., Jr.,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5).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Upper Saddle River: Pearson/Prentice Hall.

Hayes, A. F. (2015).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분석 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 (이형권 역). 신영사(원전은 2013 출판).

Hong, S., Malik, M., & Lee, M.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Howard Sharp, K. M., Schwartz, L. E., Barnes, S. E., Jamison, L. E., Miller-Graff, L. E., & Howell, K. H. (2017). Differential influence of social support in emerging adulthood across sources of support and profiles of interpersonal and non-interpersonal potentially traumatic experience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6*(7), 736-755.

Janoff-Bulman, R. (1992). *Shattered assumptions*. New York: Free Press.

Kapeleris, A. R., & Paivio, S. C. (2011). Identity and emotional competence as medi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childhood psychological maltreatment and adult love relationship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0*(6), 617-635.

Kessler, R. C., Chiu, W. T., Demler, O., & Walters, E. E. (2005). Prevalence, severity, and comorbidity of 12-month DSM-IV disorder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6), 617-627.

Krause, N. (2007). Longitudinal study of social support and meaning in life. *Psychology and Aging*, *22*(3), 456-469.

Krause, N. (2012). Meaning in life and healthy

www.kci.go.kr

aging. In P. T. P. Wong (Ed.), *The human quest for meaning (pp. 409-432)*. Florence, Kentucky: Routledge.

Krause, N., & Rainville, G. (2020). Age differences in meaning in life: Exploring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support.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88*, 104008.

Lim, B. H., Valdez, C. E., & Lilly, M. M. (2015). Making meaning out of interpersonal victimization: The narratives of IPV survivors. *Violence against Women, 21*(9), 1065-1086.

Linley, P. A., & Joseph, S. (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1), 11-21.

McDonough, M. H., Sabiston, C. M., & Wrosch, C. (2014). Predicting changes in posttraumatic growth and subjective well being among breast cancer survivo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tress. *Psycho Oncology*, *23*(1), 114-120.

Norris, F. H. (1990). Screening for traumatic stress: A scale for use in the general popul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0*(20), 1740-1788.

Park, C. L., Cohen, L. H., & Murch, R. L. (1996).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tress related growth. *Journal of Personality*, *64*(1), 71-105.

Park, C. L. (2010). Making sense of the meaning literature: An integrative review of meaning making and Its effects on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Psychological Bulletin, 136*(2), 257-301.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Rosová, D., Orosová, O., & Žiaková, E. (2015). *The meaning of life, self esteem, and social support of homeless people.* doi: 10.15584/978-83-7996-203-7_19.

Schroevers, M. J., Helgeson, V. S., Sanderman, R., & Ranchor, A. V. (2010). Type of social support matters for prediction of posttraumatic growth among cancer survivors. *Psychooncology, 19*(1), 46-53.

Schumm, J. A., Briggs Phillips, M., & Hobfoll, S. E. (2006). Cumulative interpersonal traumas and social support as risk and resiliency factors in predicting PTSD and depression among inner city wome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9*(6), 825-836.

Shane J. Lopez (2011). 역경을 통해 성장하기 *{Positive psychology: exploring the best in people, Four Volumes}* (권석만, 박선영, 하현주 역). 서울: 학지사.

Shin, J. Y., & Steger, M. F. (2016). Supportive college environment for meaning searching and meaning in life among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7*(1), 18-31.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4).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nnesota.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www.kci.go.kr

53(1), 80-93.

Steger, M. F., Oishi, S., & Kesebir, S. (2011). Is a life without meaning satisfying? The moderating role of the search for meaning in satisfaction with life judgments,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6*(3), 1-12.

Tanriverd, D., Savas, E., & Can, G. (2012). Posttraumatic growth and social support in Turkish patients with cancer.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13*(9), 4311-4314.

Taylor, S., Asmundson, G. J. G., & Carleton, R. N. (2006). Simple versus complex PTSD: A cluster 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0*(4), 459-472.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Tedeschi, R. G., Cann, A., Taku, K., Senol-Durak, E., & Calhoun, L. G. (2017).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a revision integrating existential and spiritual chang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0*(1), 11-18.

Updegraff, J. A., Silver, R. C., & Holman, A. (2008). Searching for and finding meaning in collective trauma: Results from a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the 9/11 terrorist attack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3), 709-722.

Weiss, T. (2002). Posttraumatic growth in woman with breast cancer and their husband: An intersubjective validation study.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20*(2), 65-80.

Weiss, T. (2004). Correlates of posttraumatic growth in married breast cancer survivor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5), 733-746.

Woodward, M. J., Eddinger, J., Henschel, A. V., Dodson, T. S., Tran, H. N., & Beck, J. G. (2015). Social support, posttraumatic cognitions, and PTSD: The influence of family, friends, and a close other in an interpersonal and non-interpersonal trauma group.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35*, 60-67.

Zeligman, M., Varney, M., Grad, R. I., & Huffstead, M. (2018). Posttraumatic growth in individuals with chronic illness: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meaning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6*(1), 53-63.

Žukauskienė, R., Kaniušonytė, G., Bergman, L. R., Bakaitytė, A., & Truskauskaitė-Kunevičienė, I. (2019).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identity processes and posttraumatic growth: A study of victim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15-16), 7599-7624.

원고접수일 : 2021. 06. 25.
수정원고접수일 : 2021. 10. 04.
게재확정일 : 2021. 10. 13.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2022, Vol. 8, No. 2, 167-188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with Interpersonal Trauma: Sequential Mediation of Search for Meaning and Presence of Meaning

Eun-Young Lee[1)] **Bin-Na Kim**[2)†]

[1)]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Department of Psychology, Gachon University

Post-traumatic growth (PTG) refers to a positive change and maturation that occurs after traumatic events as a consequence of coping with trauma.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perceived social support, search for meaning, and presence of meaning respectively have positive associations with PTG. However, inadequate research exists that comprehensively examined these variables in female college students who experienced interpersonal trauma.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search for meaning and presence of meaning sequen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TG. In total, 274 female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search for meaning and presence of meaning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TG. Moreover, serial mediation was significant; perceived social support increased search for meaning that, in turn, led to increased presence of meaning, and ultimately to an increased level of PTG. The current results indicate that perceived social support can function as a psychological resource that can facilitate search for meaning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with interpersonal trauma, paving the way for presence of meaning linked to PTG. Finally, we discuss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provid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Interpersonal trauma, Post-traumatic growth, Perceived social support, Search for meaning, Presence of meaning

† Corresponding Author : Bin-Na Kim / Department of Psychology, Gachon University / Gachon Hall 926, Seongnam-daero 1342, Sujeong-gu, Seongnam 13120 / E-mail : shine-binna@hanmail.net

www.kci.go.kr